

메시지 4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성경: 마 28:19, 고전 15:45, 고후 3:17, 13:14

I.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가장 분명한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A. ‘이름 안으로’는 인격을 가리킨다.

1. 침례 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인격 안으로, 다시 말하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2.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안으로’라는 말은 로마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와 같이 연결을 가리킨다.
3.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삼일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이다.
4.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신성한 삼일성을 위한 하나의 이름이 있다.
 - a.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 b. 믿는 이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B. 하나님은 셋-하나이시다 — 고후 13:14.

1.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은 세 위격,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다.
2. 이 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언급하셨을 때, 이 ‘이름’은 원문에서 단수이다.
3.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셋이시지만 이름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세 위격을 위한 한 이름은 참으로 비밀스러우며, 하나님께서 셋-하나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5. 이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을 포함한다.
6.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계신다.

II.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써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받았다.

- A.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하신 명령은 부활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하신 것이다. 부활은 삼일 하나님께서 거치신 과정의 완결이었다.
- B. 삼일 하나님은 육체 되심으로 시작하여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포함하고 부활로 완결되는 과정을 통과하셨다.
- C.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 고전 15:45, 고후 3:17.
- D. 이 영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삼일성 안으로 침례 받을 수 있게 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 E. 삼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신 영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1. 이것은 아버지의 풍성 안으로, 아들의 풍성 안으로, 그 영의 풍성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다.
 2. 침례 받은 이들로써 우리는 이제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아들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과 그 영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 F.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은 그분과의 비밀한 연결 안에 놓여져 하나님의 온 존재를 우리 존재 안으로 취하는 것이다.

Ⅲ. 그리스도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시다 — 고후 13:14.

A. '과정을 거치신'이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주요 단계들을 가리킨다.

1.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기 전에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어 신성한 본성만 있으시고 인간 본성은 없으셨지만,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셨다.
2. 요한계시록에서 삼일 하나님은 신성, 인성, 인간 생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 능력 있는 부활, 초월하는 승천을 포함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 계 1:4-5.

B.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 영이시다 — 계 22:17상, 요 7:39.

1.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의 여러 칭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총합이자 총체이시다 — 마 3:16, 10:20, 눅 1:35, 4:18, 롬 8:9, 갈 4:6.
2.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복이시다 — 갈 3:14.

C. 요한계시록에서 삼일 하나님은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시자 건축되신 하나님이시다 — 계 21:18-19상, 21.

1. 성전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데, 새 예루살렘은 태초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 창 1:1, 계 21:10.
 - a. 유일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영원한 표현을 위해 한 성으로 확대되시고 확장되신다.
 - b.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되셨다 — 계 21:10.
 - c.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어지셨다 — 계 21:18-19상, 21상.
2. 새 예루살렘이 되신 하나님은 건축하시는 하나님이시자 건축되신 하나님이시다 — 삼하 7:12, 14상, 마 16:18, 엡 3:17.
 - a.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근원과 요소와 본질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 — 엡 3:17.
 - b.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는 그분의 갈망을 이루고 계신다. 결국 이러한 건축의 결과는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 계 21:2, 10.

D.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위한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완결된 계시를 본다 — 계 22:1-2, 7:17상, 21:6하, 요 4:14하.

1. 신성한 분배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 고후 13:14.
2. 신성한 분배에 있어서 아버지는 원천이시고, 아들은 샘이시며, 그 영은 흐름이시다.